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연구

- 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 Collaborative Repository of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Focused on the Busan Metropolitan Library

강 은 영 (Eun-Yeong Kang)*

초 록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공통적인 문제로 장서수장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보존서고 설치를 통한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 역시 지역 도서관 자료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책임을 지역대표도서관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 중 본격적으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공동보존서고의 운영현황과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관내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현장조사, 내부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입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지역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ABSTRACT

The 3rd Library Development Plan raises the need to secure spa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repository library as the issue of holding books is highlighted as a common problem in public libraries. The Korean Library Law Act also impose the responsibility of integrated management of local library materials on the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at Busan Metropolitan Library, which is operating a collaborative repository in earnest among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and investigat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and the perception of public librarians about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The data necessary for the study were obtained through surveys, interviews, field surveys, and internal data analysis.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hat will help the Busan Metropolitan Library to operate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efficiently in the future, and at the same time, to present basic data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of the representative libraries of other regions.

키워드: 공동보존서고,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 자료보존, 부산도서관

Collaborative repository, Regional central library, Collaborative preservation, Collection preservation, Busan Metropolitan Library

*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도서관교육전공 조교수(eykang@silla.ac.kr)

논문접수일자 : 2022년 8월 12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9월 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55-76,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055>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Multi cultural space)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라키비움(Larchiveum), 스마트도서관(Smart library),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글램(GLAM, Gallery · Library · Archives · Museum),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 미디어테크(mediatheque) 등과 같은 창의 · 융합공간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 도서관 공간의 개념을 자료열람공간에서 탈피하여 창조와 협업의 공간으로 확대해나가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첨단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요구 등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도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제한적인 공간과 매년 증가하는 장서증가량으로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4개의 전략방향, 13개의 정책 과제 그리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전략방향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추진과제로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자료의 납본 · 보존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향토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공공도서관 공통 문제로 장서수장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보존서고 설치를 통한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공간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동보존서고의 경우도 운영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실질적인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장서보존기능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역 단위의 거점형 공동보존서고 설치와 운영을 확대하고 공동보존서고 운영가이드라인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17개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공공도서관과 타 관중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 중, 지역정보 자산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지역대표도서관에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장서수장 문제 해소, 공공도서관 자료의 최신성 확보와 방대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 그리고 특히 공공도서관의 충분한 공간확보를 통해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 결과, 현재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거나 설립된 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 공간을 구성하고 시설을 구비하여 운영 계획 중인 곳이 다수이며, 지역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특히, 신설된 대표도서관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여 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보존서고 운영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의 문제로 서고와 관련 시설만 구비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는 부산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자료보존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대표도서관 공

동보존서고 운영계획 수립단계에 반영한 다음,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을 제안한 연구(강은영, 장덕현, 2017)에 이어 공동보존서고 운영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역대표도서관 중 공동보존서고 운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사례로 하여 운영현황과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관내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살펴 본 다음, 향후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데이터와 타 지역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및 설립 현황을 조사한 다음, 공동보존서고를 구비한 도서관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어 연구대상인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현황을 업무조직, 자료현황, 공간과 시설, 자료이관과정, 자료정리와 배가, 자료제공서비스 등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불어 부산시 공공도서관 보존서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존서고의 유형,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이유, 보존서고의 포화상태 등으로 나누어 단위도서관 보존서고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관 여부, 자료이관 이후 보존서고 공간문제 해결 정도, 향후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관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기능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담당 사서와의 인터뷰, 공동보존서고 운영관련 내부 자료 분석, 공동보존서고 현장조사, 공공도서관 보존서고 담당자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수하였다.

1.3 선행연구

국내 공공도서관계에서 단위도서관 자료수장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보존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2006년 이루어진 강현민의 연구이다. 해외의 경우 권역별 등 다양한 형태로 공동보존서고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의 공동보존은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단위도서관 보존서고의 물리적·기능적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이 해당 지역 내 공동보존관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보존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강현민, 2006).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해인 2007년 「도서관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내용 중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역 내 다른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관받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된다. 이후 2011년에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자료보존 업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보존공간 등의 필요성과 부채를 파악한 다음 지역도서관 자료의 이관 및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이 공

동보존도서관의 운영권을 갖는 모형을 제안하였다(신지연, 김유승, 2011). 이어 2013년에는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도서관의 수장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중심의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부산시 공동보존서고는 지역대표도서관의 부속 시설로 관리하되,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에는 단위도서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임을 제안하였다(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이어 법리적, 정책적, 인식적, 현실적 측면에서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모형에 근거를 제공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위해 주무부처와 광역시도가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윤희윤, 2013a). 더불어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칙, 건축규모, 단위도서관의 이관자료 기준과 소유권 문제,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 등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이관된 자료의 소유권은 공동보존서고로 귀속하며 공동보존서고 관리운영은 시도가 주체가 되어 별관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윤희윤, 2013b). 이후 2017년에는 지역 내 단위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을 파악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보존서고 계획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보존현황과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공동보존서고 운영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공동보존서고의 서고공간, 업무공간과 이용공간 등으로 구분된 공간운영방안과 자료이관주기, 자료이관절차와 기준 등의 자료이관방안 등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강은영, 장덕현, 2017).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자료 수장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 수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서울시 공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으며, 현황 분석을 토대로 공동보존서고 건립규모, 바람직한 서가와 서고 유형, 건축 규모와 예상비용 등을 제안하였다(윤희윤, 장덕현, 2021).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법제가 정비되면서 도서관계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이용하여 지역 내 공공도서관 등 단위도서관의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료의 장기보존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지역대표도서관이 지정되거나 건립되면서 공동보존서고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동보존서고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몇몇 지역에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는 사례¹⁾가 있지만 지역대표도서관 차원에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는 사례로는 부산도서관이 처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²⁾ 이에 이 연구는 현재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타지

역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와 향후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국내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현황

지역대표도서관은 2006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개정 당시에는 시도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 기준, 지정운영 지역은 7개, 설립운영 지역은 10개이며, 건립 중이거나 건립 추진 중인 곳이 5개 지역으로 집계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운영 도서관은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수원선경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등 7개관으로 해당도서관은 현재 모두 보존

서고에 자관자료만 보관하고 있다.³⁾ 설립운영 도서관은 이 연구의 대상인 부산도서관과 서울 대표도서관,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울산도서관, 세종시립도서관, 충남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경북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등 총 10개관이다. 이들 도서관 중 연구대상인 부산도서관과 자관자료만 보관 중인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등 3개관을 제외한 5개관의 공동보존서고 현황을 살펴 보았다.

울산도서관은 2018년 4월 개관하면서 지하층에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였다. 서고의 규모는 911.5㎡로 최대 60만 책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다. 공간은 서고공간과 업무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서고공간에는 전동식 5단 모빌랙과 7단 모빌랙이 설치되어 있고 업무공간은 수선실, 자료소독실, 매체변환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장소 이전되어 2023년에 완공되는 울산중부도서관 자료 중 일부를 임시보관하고 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2021년 11월 개관하면서 지하층에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였다. 서고의 규모는 자료인수실을 제외하고 537.59㎡로 최대 22만 책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다. 서고공간

- 1) 2008년 개관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도내 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 7개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공동보존하고 있다. 보존서고는 2655.88㎡로 전체공간의 17.8%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자료의 최대 수장량은 76만여 책으로 지하 2개층으로 서고공간(제1보존서고-제3보존서고)과 업무공간(준비실, 소독실, 인쇄제본실)으로 구획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계에서 최초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17년에 개관한 마포중앙도서관은 총 15개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공동보존하고 있다. 보존서고는 303.89㎡의 규모로 자료의 최대 수장량은 10만여 책으로 지하 1개층을 활용하고 있다. 2017년에 개관한 가재울도서관 역시 의정부시 공공도서관(의정부시 공공도서관 5개관)의 자료보관 장소 부족에 따른 장서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층 서가를 공동서고로 운영하여 자료를 이관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 서고는 944.33㎡의 규모로 자료의 최대 수장량은 12만여 책이다.
- 2) 세종시립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운영 중이나, 공동보존서고 운영 규정이 수립되지 않았고 자료이관주기와 자료이관기준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모빌랙 추가 설치분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 3) 경기도의 경우, 현재 권역별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1〉 국내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 현황과 공동보존서고 운영 현황

(2022년 8월 기준)

지역	도서관명	지정운영	설립운영	건립예정	비고: 지정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서울	서울대표도서관		○ (‘12.09.28)	○	서울도서관	
부산	부산도서관		○ (‘20.11.07)			○
대구	대구대표도서관	○ (‘11.03.01)		○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인천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 (‘08.04.01 지정, ‘09.06.23 개관)			
광주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 (‘10.12.21)		○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 (‘07.09.20)				
울산	울산도서관		○ (‘18.04.26)			○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 (‘21.11.11)			
경기	경기대표도서관	○ (‘15.01.02)		○	수원선경도서관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 (‘18.12.05)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 (‘20.01.02)				
충남	충남도서관		○ (‘18.04.25)			○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 (‘10.11.22)		○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 (‘11.10.20)			
경북	경북도서관		○ (‘19.11.13)			○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 (‘18.02.12)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 (‘08.11.13)			
계		7	10	5	-	-

에는 전동식 6단 모빌렉 48대와 향온향습기가 설치되어 있다. 모빌렉 설치는 2023년 2차로 최종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내 공공도서관 11개관 으로부터 3권 초과 소장 복본자료, 마지막 대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료, 세종지역 관련자료 등을 1차 이관받아 2022년 4월 현재 8,027권을 수장하고 있다. 자료이관기준과 자료이관주기는 향후 변경할 예정이며, 공동보존서고 운영

규정은 미수립상태이다.

충남도서관은 2018년 4월 개관하면서 지상 1층에 공동보존자료관을 마련하였다. 서고의 규모는 1,112.13㎡로 최대 69만 책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다. 보존서고는 2개 구역으로 구획하여 보존서고 1(843.52㎡)은 55만 책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규모로 일반도서를 수장하고, 보존서고 2(277.61㎡)는 14만 책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규모로 희귀본과 귀중본 등을 수장하고 있다. 서고 내에는 모빌랙과 향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3월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충남도서관은 올해 1만 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년 간 도내 중요문헌 60만 책에 대한 수집 및 공동보존자료관 이관 등 영구보존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2월 도내 귀중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3월 도 농업기술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중요문헌 3,000여 책의 이관을 마쳤다. 이관된 문헌은 일제강점기 농업기술 관련 희귀본 1,000여 책 간행된 지 50년이 지난 국내의 농업관련 전문도서 2,000여 책이다. 해당 자료는 정밀한 목록데이터 구축작업과 장기보존을 위한 탈산 및 전문소독 과정을 거쳐 공동보존자료관에 영구보존한다(이성엽, 2022).

경북도서관은 2019년 3월 개관하면서 지하층에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였다. 서고의 규모는 1075.21㎡로 3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모빌랙을 설치하였다. 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북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남대표도서관은 2018년 2월 개관하면서 청소년관 1층에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였다. 서고

의 규모는 496㎡로, 서고 2개 공간 264㎡(보존서고 1, 보존서고 2)와 작업장 32㎡로 구획되어 있다. 2018년 「자료공동보존 협정서」를 제정하고 2021년 3월 「경남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경남대표도서관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개월 동안 공동보존서고 시범운영을 통해 2만2천 책을 이관받아 수장하고 있다. 2018년 경남 내 2개 공공도서관과 공동보존서고 협정을 체결한 뒤, 보존서고 공간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여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이관받아 등록번호 순으로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이관된 도서를 대상으로 복본조사를 실시하여 추출된 중복도서, 이용이 불가능한 파본도서, 참고도서 그리고 컴퓨터 관련 도서, 여행 안내 도서, 영어회화 등 이용주기가 짧은 도서는 제적하여 폐기처리하고 나머지 자료만 이관도서로 등록하였다. 이관자료는 보존서고 등록구분 코드 'CR(Collaborative Repository)'을 부여하고 등록된 이관도서의 MARC 데이터를 경남대표도서관 KLAS로 반입한 다음, 기존도서관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다음 필요한 필드만 추가하여 정리하였다. 정리작업이 완료된 자료는 라벨링 작업과 TAG 작업을 거쳐 서고에 배가하였다. 현재 서고는 향온항습시설, 화재대비 소화가스 설비와 방화시설 그리고 자외선 차단 LED 조명이 설치된 상태이며, 미생물 서식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소독을 계획 중이다.

3.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현황

부산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3조에 의한 지

역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료이관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율은 저조하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의 이관을 통해 단위도서관의 서고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쾌적한 자료실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자료의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시작은 2016년 3월 「부산대표도서관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이다. 공동보존서고 운영이 결정되면서 부산시는 부산지역 내 단위도서관 중 보존서고가 포화상태에 이른 11개 도서관의 자료를 임시로 이관받았다. 2016년 10월 부산시는 부산도서관 이관예정도서 임시보관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보관소 마련 관련으로 부산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16년 11월 임시보관소 마련 결정을 부산시에 통보한 다음, 부산시와 함께 임시보관소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임시보관소에 수장되었던 자료는 총 113,567책(점)이었다(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 2017). 임시보관소로 이관한 자료가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심이었는데, 그 이유는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 비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서고포화도가 높은 편이고 이관희망 자료도 2배 가까이 많았으며, 담당 사서들의 요구도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8년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료 이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관방법 및 이관자료 정리지침 등을 수립하였다. 이관 시 이관자료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를 제출하고 부산도서관 자료로 등록·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관

자료는 3책 이내, 이관도서관 MARC 반입 등 자료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합의하였다. 이어 2020년 4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1월 부산도서관 개관 시점 임시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던 이관자료 113,567책(점)을 최종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였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료 이관 계획」을 수립, 2022년에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이관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3.1 업무조직

공동보존서고로 입고되는 자료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는 기록연구사 1인, 이관의 전반적인 과정은 사서 1인으로 총 2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복본조사, 검수, 정리, 자료구분(보존, 열람), 배가 처리는 사서가 전담하고, 배가된 자료의 배열확인(등록번호 순) 및 위치정보 부여 등은 기록연구사가 처리한다. 또한 서고 내 자료의 열람 및 대출과 반납은 각 자료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3.2 자료현황

부산도서관은 지하 2개층, 지상 1개층에 연면적 2,762㎡, 약 150만 책 소장 규모의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보존서고는 7개 일반서고(원본보존, 열람보존, 신문서가 등)와 귀중서고 1개 등 총 8개로 구분되어 있다. 2022년 8월 현재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는 149,917책(점)이고, 이 중 이관자료는 122,813

책(집)이며 나머지 자료는 부산도서관 내 이전 자료이다.

2020년 12개 공공도서관, 2021년 6개 공공도서관, 2022년 1개 자료실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았으며, 이관자료 현황은 <표 2>와 같다. 2020년 개관시 부터 현재까지 12개 공공도서관(중복제외)과 1개 자료실로부터 자료 194,066책(집)을 이관받아 수집하였다. 이관받은 자료 중 122,813

책(집)은 부산도서관 장서이관등록을 완료하였으며, 76,253책은 등록 작업 중에 있다.

보존서고로 입수되는 자료의 유형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 시청각자료, 박물관 자료 등으로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자료유형별로는 현재 단행본 116,231책, 제본 형태의 연속간행물 2,131책 그리고 신문 4,451부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관자료의 주제별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2>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이관자료 등록 현황

(2022년 8월 기준)

년도	이관기관	장서수(책/집)
2020년	A도서관	20,175
	B도서관	7,871
	C도서관	11,938
	D도서관	9,751
	E도서관	4,844
	F도서관	4,946
	G도서관	30,050
	H도서관	5,304
	I도서관	4,490
	J도서관	4,539
	K도서관	4,660
	L도서관	48
2021년	A도서관(1차)	251
	B도서관	509
	C도서관	2,239
	D도서관	4,000
	E도서관	10,949
	F도서관	20,059
	A도서관(2차)	32,070
2022년	A자료실	15,373
합계		194,066

<표 3> 이관자료의 주제별 현황(등록자료 기준)

(2022년 8월 기준)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장서수(책)	12,302	7,685	4,478	25,607	5,703	13,384	7,599	4,380	32,016	9,659	122,813
비중(%)	10.0	6.3	3.6	20.9	4.6	10.9	6.2	3.6	26.1	7.9	100.0

3.3 공간과 시설

3.3.1 공간

공동보존서고 공간은 크게 업무공간과 자료 수장공간으로 구분되며, 업무공간은 인수실, 소독실, 자료정리실(수선/매체변환) 등으로 구획되어 있다.

자료수장공간은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귀중서고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자료특성을 고려하여 서고 내에서도 서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서고의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보존서고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서가의 경우 자료의 유형, 입수방식(이관, 납본, 기증 등) 그리고 등록여부에 따라 배치한다(〈표 4〉 참조).

3.3.2 시설

보존서고 내 향온향습시설을 구비하여 연중 온도 20±2°C, 상대습도 45±5%를 유지하고 있으

며, 대용량 도서 소독기 3대(지하 1층 서고 1-3)와 출입구 통제시스템을 각 실별 1대씩 총 8대를 구비하고 있다. 더불어 귀중서고에는 수장고용 내장재, 향온향습시설, 이중보안 출입장치 등을 구비하고 있다. 서가 역시 장기보존에 유리한 오동나무 서가를 구비하고 있으며, 서가유형은 일반형(도서, 잡지류 등 보관), 서랍형(지도, 도면 등 보관), 회귀자료용(전면 유리문, 시건장치 등) 등으로 구분하여 구비하고 있다.

3.4 자료이관과정

3.4.1 이관주기와 소유권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료이관주기는 연 1-2회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만, 귀중도서와 회귀서 및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공동보존서고 담당자와의 협의 후 수시 이관 신청이 가능하다. 이관하는 자료의 소유권과 서지데이터의 관리 권한은 부산도서관에 귀속된다.

〈표 4〉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현황(부산도서관, 2021; 부산도서관, 2022b)

구분	공간명	서가수	면적(㎡)	배치자료	최대 수장량(권)
지하1층	보존서고 1	69	396.60	이관도서(열람용), 이전도서(열람용)	250,000
	보존서고 2	95	628.68	이관도서(보존용), 이전도서(보존용) 연속간행물, 납본자료	380,000
	보존서고 3	42	276.73	비도서자료(보존용)	100,000
	귀중서고	9	99.63	귀중자료	30,000
	업무공간(인수실, 소독실, 자료정리실(수선/매체변환))	-	122.69	-	-
지하2층	보존서고 4	54	324.82	아카이브자료, 기증자료(등록), 기증자료(미등록), 이전자료(미등록/신문, 연속간행물)	200,000
	보존서고 5	95	625.30	-	380,000
	보존서고 6	41	276.73	-	100,000
	향온향습실 1,2	-	99.63	-	-
지상3층	보존서고 7	22	140.24	이전도서(등록)	60,000
총계	8개 서고 등	427	2,991.05	-	1,500,000

3.4.2 이관대상자료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이관대상자료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자치구군, 교육청)과 행정기관(시·의회·시교육청, 시 소속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 기관, 구·군 및 해당 기관 자료실 등)이 소장하거나 생산하는 자료이다. 해당 자료는 복본조사 및 실물확인 후 등록대상자료로 선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관등록여부를 심의 한 후 등록한다. 더불어 지역 공공도서관의 이관희망자료 중 최대 2복본(보존용 1책, 열람용 1책), 부산지역자료, 귀중자료(고서, 해방 전 자료, 출판 이후 50년 경과한 자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외 부산도서관이 구입한지 1년 경과한 자료 중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도 보존용 서고로 등록하며, 해당 자료는 이전자료로 관리하고 있다.

3.4.3 이관기준

단위도서관에서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는 자료는 발행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자료, 마지막으로 대출된 후 5년 경과한 자료, 새로운 판으로 대체된 자료, 학술적 가치가 있지만 오래되거나 다른 포맷으로 대체된 자료, 부산도서관에서 이관을 요청한 자료 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 자료 중 물리적 상태가 좋은 사본을 보존서고로 이관하고 물리적 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는 단위도서관에서 자체 폐기하도록 한다. 곰팡이에 오염되거나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자료 즉,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서비스 가능한 상태)의 자료를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서(한국 1910년, 중국 1911년, 일본 1867년 이전 간행(필사)), 해방 전 자료, 출판 이후 50년 경과한 자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등은 귀중자료로 별도 취급한다.

단행본 총서·다권본·전집·연속간행물의 경우 누락된 이슈가 없는 완질의 상태로 이관하는 것 즉, '완결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공동보존서고 담당자가 전체 볼륨 상태를 최종 확인하지만 일차적으로 이관하는 단위도서관이 컬렉션의 완결성과 물리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컬렉션에서 특정호가 누락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경우,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컬렉션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다른 단위도서관을 통해 수집하여 컬렉션의 완결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3.4.4 이관절차

단위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가 이관되는 절차를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부산도서관에서 자료이관계획을 알리면 단위도서관에서 이관희망자료 목록을 제출한다. 이어 부산도서관에서 복본조사를 실시하여 이송대상자료를 선별·통지하면 단위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송한다. 이후 부산도서관에서 자료의 실물을 확인한 다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뒤, 단위도서관과 함께 물품관리전환 합의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단위도서관에서 서지데이터(MARC)를 이관하고 부산도서관에서 자료등록을 마치면 이관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러한 자료이관절차와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부산도서관과 이관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단위도서관이 작성하는 이관희망자료목록 작성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과 자료이관기준은 다음과 같다(부산도서관, 2022).

〈이관희망자료 목록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소장 도서관	등록 번호	청구 기호	표제	저자 사항	발행처	발행년	이관기준	ISBN	비고
00 도서관	E0042715	020.1 임75c c.4	圖書館學 概論	任鍾淳	한국 도서관협회	1969	20		연속간행물

* 자료유형별로 파일작성(예) 단행본, 연속간행물, 필름, 음반 등)

* 이관기준

기준(이관사유)	설명
20	마지막 발행일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자료
5	마지막으로 대출된 후 5년 경과한 자료
S(Superseded)	새로운 판으로 대체된 자료
*	부산도서관에서 이관을 요청한 자료

3.5 자료정리와 배가

단위도서관에서 제출한 이관희망자료목록을 기준으로 부산도서관에서 복본조사 실시 후 이관대상 자료를 선별하여 해당 도서관에 통지한다. 이관대상 자료로 선별된 자료는 부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이관 심의를 거쳐, 1종당 최대 2복본을 선정하여 보존용 1책, 열람용 1책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동종의 자료가 다수의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될 경우, 이관신청을 실시한 순서에 따라 선 이관신청자료를 이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이관 결정된 자료에 대해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서지 DB(MARC 데이터)를 이관한다. 이후 부산도서관에서 자료의 보존상태를 점검하여 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소독처리하여 보존용 도서는 보존서고 2, 열람용 도서는 보존서고 1, 보존용 비도서는 보존서고 3에 각각 비치한다. 등록되는 자료에 대한 소독처리는 공동보존서고 입고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산화나 열화가 진행된 귀중자료의 탈산처리는 전문업체

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관된 자료의 목록은 기존 MARC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번호와 별치기호의 부여, 이관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필드는 추가 생성한다. 단위도서관에서는 MARC 데이터를 이관하기 전에 이관자료의 소장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MARC 데이터 이관 완료시 데이터 변동 사항은 통계에 자동 반영된다. 이관받은 MARC 데이터는 부산도서관에서 필요한 필드를 재생성하거나 추가생성하여 작성한다. KLAS를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의 MARC 데이터가 이관되면 040필드가 자동 수정되고 500필드가 자동생성되며, KLAS 이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의 MARC 데이터가 이관되면 해당 필드는 수동으로 설정해준다. 이외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부산도서관에서 MARC 데이터를 생성하며, 데이터 생성을 위한 필수 서지정보를 이관도서관에 요청한다(〈그림 1〉 참조).

공동보존서고로 이관된 자료 중 유일자료는 보존용 서고(보존서고 2)에 입고하고 복본자

태그	지시	필드	Action	예 시
001		▼a제어번호	재생성	001 ▼aKMO202000001
005		▼a생성일자	재생성	005 ▼a20190120145557
040		▼a최초목록작성기관	재생성	040 ▼a○○○○○○○▼c○○○○○○○▼d126157
		▼c입력기관	재생성	245 \$a○○○○○○○\$c○○○○○○○(원도서관부호)
		▼d수정기관	추가재생성	\$d126157(부산도서관부호)
500		▼a일반주기	추가재생성	500 ▼a○○○○년 ○○도서관에서 이관 245 이관년도 및 원도서관명 입력
049		▼f등록번호	재생성	049 ▼aAYE130001▼aBHW
		▼f별칭기호		

〈그림 1〉 이관자료 서지DB 추가생성 및 재생성 필드(부산도서관, 2019)

료는 열람용 서고(보존서고 1)에 입고하여, 라벨 부착 후 등록번호순으로 배열한다.⁴⁾ 보존서고 3-6은 향후 수장능력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용한다. 귀중자료의 경우 훼손 방지를 위해 자료에 장비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서고와 서가에서 안내문으로 대체하며, 제작 국가별, 제작 연도순으로 배가하고, 비도서자료는 형태별로 구분한 뒤 등록번호순으로 배가한다.

3.6 자료제공서비스

공동보존서고는 폐가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열람 및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형 보존이 최우선인 귀중본의 경우 직원의 입회하에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영구적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도서관장이 승인 후 열람할 수 있다. 귀중본과 보존자료 모두 관외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외 열람용 자료는 열람과 관외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자료 검색 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대출 신청을 실시하면, 익일 자료실에서 수령 가능하다. 현재 보존서고 소장자료 중 17,059책에 대한 검색 및 대출과 열람이 가능하다.

3.7 폐기

공동보존서고 내 자료는 원칙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리적인 손상·훼손의 상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 심의 후 폐기할 수 있지만, 해당 도서가 유일 자료인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는다.

이상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현황을 업무조직, 자료현황, 공간과 시설, 자료이관과정, 자료정리와 배가, 자료제공서비스 등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경우 첫째,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 둘째, 보존서고 공간이 업무공간과 자료수장공간으로 구획되어 있고 자료수장공간 내 수장순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보존시설과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점, 셋째, 자료이관주기와 소유권 처리, 이관대상자료, 자료이관기준, 자료이관절차, 자료정리와 배가, 자료제공서비스, 자료의 폐기 등 자료이관절차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다른 지역 공동보존서고와의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관도서관의 청구기호 라벨은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관도서관의 바코드 역시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변경된 신규 바코드와 보호키퍼를 부착한다.

4.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보존현황과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인식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시 공립공공도서관 48개관 중 분관을 제외한 본관 31개관의 보존서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존서고 현황과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31개관 중 28개관(교육청 소속 도서관 9개관, 지자체 소속 도서관 19개관)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90.3%이다.

보존서고 현황파악을 위해 우선 공공도서관의 보존서고 유형을 살펴보았다. 조사에 응한 28개 도서관 중 24개관(85.7%)이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존서고가 없는 도서관이 4개관(14.3%)로 나타났다. 보존서고가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의 경우, 개관초기이거나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하여 보존서고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더불어 현재 보존서고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있었다. 다른 공간을

보존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공공도서관이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공간부족(저조한 이용률)·파손/훼손·복본과다·최신성 저하·장기적 보존가치·내용의 부적절성 등의 순으로 그 이유를 꼽았다. 다만,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비해 지자체 소속 도서관에서 공간부족과 자료의 파손/훼손이 자료이관의 이유가 되는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더불어 지자체 소속 도서관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장기적 보존가치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은 자료이관의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지자체 소속 도서관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표 6〉 참조).

공공도서관 보존서고의 포화상태를 조사하였다. 강은영, 장덕현(2017)의 연구에서 '이미 포화상태'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50.0%에 이르는

〈표 5〉 보존서고 유형

(도서관수(%))

구분	보존서고 있음	다른 공간을 보존공간으로 공동활용	보존서고 없음	합계
지자체 소속	17(89.5)	0(0.0)	2(10.5)	19(100.0)
교육청 소속	7(77.8)	0(0.0)	2(22.2)	9(100.0)
전체 도서관	24(85.7)	0(0.0)	4(14.3)	28(100.0)

〈표 6〉 보존서고 자료이관 이유(복수응답)

(도서관수)

구분	공간부족	저조한 이용률	파손/훼손	복본 과다	최신성 저하	내용의 부적절성	장기적 보존가치
지자체 소속	16	11	13	10	10	3	0
교육청 소속	8	7	2	5	4	0	5
전체 도서관	24	18	15	15	14	3	5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연구에서는 45.8%로 나타나 포화상태이던 도서관의 보존서고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⁵⁾ 다만, 해당 연구에서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16.7%였던 것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33.3%로 나타나 일부 단위도서관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부산시 공공도서관이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관을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 살펴 보았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한 도서관은 총 12개관이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 중 9개 도서관만 응답하였다. 전체 도서관에서 자료이관을 실시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자료이관을 실시하지 않은 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이관을

실시하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 공간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이관대상 자료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료의 선별이 어려운 경우나 이관 가능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이관업무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이관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그 이유를 들었다.

이송 방법 등 어떤 과정을 거쳐 자료가 이관되는지 알기 어렵다. 가능하다면 참고할만한 사례공개가 있으면 좋겠다.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이관대상 자료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료의 선별이 어렵다.

이관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며 이관 절차가 복잡하다.

<표 7> 보존서고 포화 상태

구분	(도서관수(%))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전체 도서관
이미 포화상태	8(47.1)	3(42.9)	11(45.8)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6(35.3)	2(28.6)	8(33.3)
향후 5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2(11.8)	1(14.3)	3(12.5)
향후 10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0(0.0)	1(14.3)	1(4.2)
향후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 유지 가능	1(5.9)	0(0.0)	1(4.2)
합계	17(100.0)	7(100.0)	24(100.0)

<표 8>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료이관 여부

구분	(도서관수(%))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전체 도서관
있다	2(10.5)	7(77.8)	9(32.1)
없다	17(89.5)	2(22.2)	19(67.9)
합계	19(100.0)	9(100.0)	28(100.0)

5) 해당 연구에서는 '이미 포화상태' 50%, '향후 2-3년 이내 포화상태 도달' 16.7%, '향후 5년 이내 포화상태 도달' 16.7%, '향후 10년 이내 포화상태 도달' 3%, '향후 10년 이후에도 적정수준 유지 가능' 1%로 나타났다(강은영, 장덕현, 2017).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관을 실시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간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조사하였다. '매우 많이 해결되었다'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2개관(22.2%), '많이 해결되었다'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3개관(33.3%),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2개관(22.2%),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와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각 1개관(11.1%)로 나타났다.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와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도서관의 경우, 보존서고 수장자료를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경우 자관 장서통계에서 장서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자료를 이관할 수 없었다는 점과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가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이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표 9〉 참조).

부산시 공공도서관이 향후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19개관(67.9%),⁶⁾ 이관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9개관(32.1%)로 이관계획을 가진 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계획이 없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도서관 보존서고의 여유공간이 충분하고 보존서고 자료도 대출하고 있는 중이거나 도서관 규모가 적고 소장자료가 많지 않아 당장 이관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유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부산관련자료나 희귀/귀중자료 수집과 보존(복원/매체변환) 기능'과 '단위도서관의 저이용자료에 대한 수장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

〈표 9〉 보존서고 자료이관 이후 공간부족 문제 해결 정도

구분	(도서관수(%))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전체 도서관
매우 많이 해결되었다	1(50.0)	1(14.3)	2(22.2)
많이 해결되었다	0(0.0)	3(42.9)	3(33.3)
보통이다	0(0.0)	2(28.6)	2(22.2)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0(0.0)	1(14.3)	1(11.1)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1(50.0)	0(0.0)	1(11.1)
합계	2(100.0)	7(100.0)	9(100.0)

〈표 10〉 보존서고 자료이관 계획 여부

구분	(도서관수(%))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전체 도서관
있다	12(63.2)	7(77.8)	19(67.9)
없다	7(36.8)	2(22.2)	9(32.1)
합계	19(100.0)	9(100.0)	28(100.0)

6)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한 경험이 있는 도서관은 모두 향후 이관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용자 서비스 기능(자료대출이나 원문복사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훼손자료에 대한 수선기능'에 대한 요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단위도서관이 소장하기 어려운 자료를 부산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열람가능하게 하고 단위도서관에서도 대출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공도서관의 대표도서관으로 단위도서관에서 소장하기 어려운 도서들을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이처럼 공동보존서고는 지역 내 단위도서관 자료수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관받은 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단위도서관이 열람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내 귀중자료나 희귀자료, 지역의 특성화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이라는 출발선에서 첫걸음을 막 떼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단위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담당자들은 부산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이 일차적으로 그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오랫동안 공통적

으로 겪고 있던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여 공간의 쾌적함을 유지하면서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에서 더 나아가 부산도서관이 자칫 손실될 수도 있는 지역 내 귀중자료와 희귀자료 등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큐레이팅하는 정보콘텐츠의 길잡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보존가치가 있는 양서를 발행일이 오래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료 이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재서비스가 가능하고, 단위도서관 보존서고 및 자료실 비치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방문 시 자료가 상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느꼈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

〈표 11〉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복수응답)

(도서관수)

구분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전체 도서관
단위도서관의 저이용자료에 대한 수장 기능	20	7	27
부산관련자료나 희귀/귀중자료 수집과 보존(복원/매체변환)기능	19	9	28
훼손자료에 대한 수선기능	1	1	2
이용자 서비스 기능(자료대출이나 원문복사서비스 등)	11	7	18

는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지역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지역대표도서관 중 공동보존서고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사례로 하여 운영현황과 공동보존서고에 대한 관내 공공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첫째,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2020년 11월부터 공식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현재 194,066책(점)을 이관받아 이 중 122,813책(점)이 등록되어 있다. 자료를 인계받아 위치정보를 부여하는 업무와 단위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이관받고 정리하여 배가하는 업무는 기록관리연구사 1인과 사서 1인이 수행하고 있다. 공동보존서고 공간은 인수실, 소독실, 자료정리실을 포함한 업무공간과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귀중서고로 구획된 자료수장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고 내 향온습습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귀중서고에는 수장고용 내장재와 이중보안 출입 장치 등을 구비하여 귀중자료의 보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둘째,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료이관주기는 연 1-2회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관 자료의 소유권과 서지데이터의 관리권한은 부산도서관에 귀속된다. 이관대상자료는 복본조사 및 실물확인을 거쳐 선별하며 보존용 1책과 열람용 1책을 포함하여 최대 2책까지 수용한다. 또한 이관대상자료의 기준을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간행되는 자료의 경우 누락된 이슈가 없는 컬렉션의 완결성을 우선기준으로 제시

하고 있다.

셋째, 자료이관절차는 부산도서관에서 단위도서관에 자료이관계획을 알림으로서 시작된다. 이어 자료를 이관하고자 하는 도서관에서 이관희망자료 목록을 제출하고, 부산도서관에서 복본조사 실시와 이관대상자료 선별과정을 거친 다음 단위도서관으로부터 이관대상자료를 받는다. 이후 자료가 이관되면 실물을 확인하고 부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를 제출한 다음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료로 등록한다. 등록된 자료는 이관도서관 통계에서 차감하고, 자료의 목록은 기존 도서관의 MARC을 유지하되 필요한 별도의 필드는 추가 생성한다. 이관된 자료 중 유일자료는 보존용 서고에 입고하고 복본자료는 열람용 서고에 입고하여 등록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다만, 귀중자료는 훼손방지를 위해 별도의 장비작업을 하지 않고 서가에서 안내문으로 대체하여 제작국가 별, 제작연도순, 형태 별로 구분한 뒤 서가에 배가한다.

넷째,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이관된 자료는 2021년부터 자료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에게 열람가능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출은 부산시민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귀중자료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열람을 원할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허용하고 있다.

다섯째, 공동보존서고 내 자료는 원칙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리적인 손상·훼손의 상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심의 후 폐기할 수 있지만, 해당 도서관이 유일자료인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는다.

이상 지난 2020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는 사례이고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단위도서관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의 개선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 이전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타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동안 공공도서관의 서고현황과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첫째, 조사에 응한 도서관 중 89.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존서고가 없는 도서관이 14.3%로 나타났다. 보존서고가 없는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개관 초기이거나 전체적인 공간이 부족하여 보존서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이유는 공간부족<저조한 이용률>파손/훼손<복본과다>최신성 저하<장기적 보존가치>내용의 부적절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간부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것은 2017년의 연구에서와 동일하였다.

셋째, 보존서고의 포화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45.8%로 나타나, 2017년의 연구에서 50.0%였던 것에 비해 4.2%의 도서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포화상태이던 도서관 보존서고의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관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이관 이후 공간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한 28개 도서관 중 32.1%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자료이관을 실시하였고, 67.9%의 도서관은 자료이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이관을 실시한 도서관 보다 실시하지 않은 도서관이 더 많았으며, 자료이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중 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경우와 이관업무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관절차가 복잡하여 이관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한 이후 공간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55.5%로 나타났으며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22.2%로 나타나, 절반이상의 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 운영을 통해 공간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자료이관은 폐기와 동일한 개념이며 일정기간 동안 폐기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운영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일부 공공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자료를 이관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하지만, 절반이상의 도서관에서 공간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응답을 얻었다는 점에서 공동보존서고 운영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향후 자료이관계획을 살펴 본 결과, 67.9%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이관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관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도서관은 모두 이관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2.1%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경

우, 현재 도서관이나 보존서고의 여유공간이 충분하거나 소장자료가 많지 않아 당장 이관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산관련 자료나 회귀/귀중자료 수집과 보존 기능'과 '단위도서관의 저이용자료에 대한 수장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대출이나 원문복사서비스 등 이용자 서비스 기능'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다만, '훼손자료에 대한 수선 기능'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보존서고의 기능 중 단위도서관의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서관 장서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기능이다. 이에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전에 비해 도서관 공간 부족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과 몇몇 도서관 이외 대부분의 도서관이 향후 공동보존서고로 자료 이관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점에서 공동보존서고 운영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자료이관절차가 복잡하여 이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송 방법 등 어떤 과정을 거쳐 자료가 이관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참고할만한 사례공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도서관이 '자료이

관계획 알림'단계 중 자료이관절차와 해당 절차에서 부산도서관과 이관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단위도서관 차원에서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것이 초기단계인 만큼 단위도서관이 자료이관과정에 참고할만한 참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자료이관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도서관계에서의 '자료의 공동보존'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를 운영하고 지역 내 '자료의 공동보존'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 몇몇 도서관을 중심으로 실행의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도서관으로서는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운영 현황과 단위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해보았다. 단위도서관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부산도서관이 향후 공동보존서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볼 수 있었다는 점과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타지역 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장덕현 (2017).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역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07-232.

<https://doi.org/10.16981/kliss.48.3.201709.207>

- 강현민 (2006).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3.
- 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 부산시를 사례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167-195.
- 도서관법. 법률 제18763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부산도서관 (2019). 부산도서관 자료정리지침.
- 부산도서관 (2021). 부산도서관 보존서고 자료이관 계획.
- 부산도서관 (2022a). 부산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 계획.
- 부산도서관 (2022b). 부산도서관 보존서고 자료이관 계획.
-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실 (2017). 부산도서관 이관예정도서 임시보관 처리 결과 보고: 부산시 교육협력담당관 업무보고.
- 신지연, 김유승 (2011).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29-150.
- 윤희윤 (2013a).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5-26.
- 윤희윤 (2013b).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51-74.
- 윤희윤, 장덕현 (2021).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285-303.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285>
- 이성엽 (2022.3.24.). 충남도 내 중요문헌 60만 권 영구보존 추진. 충청뉴스.
출처: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2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san Metropolitan Library (2019). Guidelines for Organizing Data in Busan Metropolitan Library.
- Busan Metropolitan Library (2021). Materials Transfer Plan of Busan Metropolitan Library Collaborative Repository.
- Busan Metropolitan Library (2022a). Operating Plan of Busan Metropolitan Library Collaborative Repository.
- Busan Metropolitan Library (2022b). Materials Transfer Plan of Busan Metropolitan Library Collaborative Repository.
-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operation (2017). Temporary Deposit of Materials

- Will Be Transferred to the Busan Metropolitan Library (Work Report: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Director for Education Cooperation's Job Report).
- Kang, Eun-Yeong & Chang, Durk-Hyun (2017). A study on a regional cooperative preservation program for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Busan metro a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207-232.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9.207>
- Kang, Hyen-Min (2006).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repository library and repository library by using of public library cooperat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1), 29-53.
- Lee, Seong-Yeob (2022.3.24.). Promoting permanent preservation of 600,000 important documents in Chungcheongnamdo. CNNNEWS. Available: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24>
-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2019). The 3rd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19-2023).
- Rho, Jee-Hyun, Cho, Yong-Wan, & Lee, Jae-Whan (2013). Developing strategies for a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y at a regional level: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167-195.
- Shin, Jee-Yeon & Kim, You-Seung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29-150.
- The Korean Library Law. No. 18763.
- Yoon, Hee-Yoon & Chang, Durk-Hyun (202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shared storage for public libraries in seoul metro a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1), 285-303.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285>
- Yoon, Hee-Yoon (2013a). Feasibilit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5-26.
- Yoon, Hee-Yoon (2013b).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1-74.